



한국GM, 인평자동차고와 산학협력

한국GM이 인천 부평구에 위치한 인평자동차고등학교와 산학협력을 맺고 지역 자동차 인재 육성에 나선다. 교육용 차량 지원과 생산 현장 체험, 실무 중심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산업 이해도를 높이고 지역사회와의 상생을 강화하기 위함이다. 한국GM은 지난 26일 인천 부평구 한국GM 홍보관에서 인평자동차고와 지역 자동차 인재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한국GM



HK이노엔, 남성 육아휴직 장려로 장관상

HK이노엔이 출산과 육아가 경력 단절이나 소득 감소의 원인이 되지 않는 건강한 기업 문화를 확산하고 있다. HK이노엔은 한반도미래인구연구원이 주최한 '2026 아이 키우기 좋은 기업 시상식'에서 남성 임직원 육아휴직 정착 공로를 높게 인정받아 성평등가족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8일 밝혔다.

/HK이노엔



소진공, NH손보와 소공인 화재안전 강화

시장진흥공단인 NH농협손해보험과 손잡고 소공인 화재 안전 강화에 나선다. 소진공은 NH손보와 지난 27일 경기 화성시에 있는 소공인 공동 기반 시설에서 '소공인 화재 안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까다로운 인수 조건과 높은 보험료 부담으로 민간 보험 가입이 어려웠던 소공인의 경영 안전망을 강화하기위해 마련했다.

/소진공

백마고지 영웅 故 남운수 상병

美 은성무공훈장 다시 품다

6·25전쟁 당시 백마고지 전투에서 혁혁한 공을 세운 고(故) 남운수 상병이 73년 만에 미국 정부의 은성무공훈장을 다시 품에 안게 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8일 오후 국립대전현충원 장병 1묘역에서 고인의 추모식 및 미국 은성무공훈장 헌정·전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고인은 6·25전쟁 중이던 1952년 10월 강원도 철원 북방 백마고지 전투에 육군 제9사단 28연대 소속으로 참전했다. 당시 적의 병커 기관총 사격으로 이군의 진격이 멈추자, 수류탄 무치로 무장한 채 포화 속을 뚫고 자발적으로 돌격해 적진지 입구를 파괴하고 부대의 공격 재개를 이끌었다. 고인은 이 같은 비범한 용맹을 인정받아 1953년 미국 정부로부터 은성무공훈장을, 국내에서는 충무무공훈장을 각각 수여받았으나, 생전에 훈장을 분실한 채 안타깝게 지내다 1997년 작고했다.

/한용수 기자 hys@

인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제10대 상임감사 △임근구 전 삼정회계법인 부대표

부음 ▲현재웅씨 별세, 성윤정(문화일보 국제부 기자)씨 외조부상 = 28일 분당차병원장례식장. 발인 30일 8시. 031-780-6163

삼성전자, 품질만족지수 18년째 최다 부문 1위

가전·TV·모바일 등 14개 부문 1위
냉장고 20회·김치냉장고 14년 연속
AI 기술로 제품 품질·편의성 높여

삼성전자가 냉장고·세탁기 등 생활가전과 TV·모바일 제품군에서 두루 1위를 차지하며 한국품질만족지수 최다 부문 수상 기록을 18년째 이어갔다.

삼성전자는 28일 한국표준협회(KSA)가 주관한 '2026 한국품질만족지수(KS-QEI)' 조사에서 14개 부문 1위에 올랐다고 밝혔다. 생활가전이 10개 부문으로 가장 많았고, TV와 스마트폰·PC·태블릿PC 부문도 포함됐다.

KS-QEI는 제품을 실제로 이용한 소비자와 해당 분야 전문가가 품질 우수성과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다. 한국표준협회가 공개한 조사 방법에 따르면 최근 6개월~2년 안에 제품을 이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키친핏 맥스 라이프스타일 이미지.

/삼성전자

용한 고객을 대상으로 기업별 200표본을 조사하며, 대면 면접과 인터넷 패널 조사를 병행한다. 성능과 신뢰성뿐 아니라 제품 이미지와 인지성·신규성도 평가 항목에 포함된다. 응답 결과는 점수화한 뒤 항목별 중요도를 반영해 종합 지수로 산출한다.

가전 부문에서는 냉장고의 누적 수

상 기록이 두드러졌다. 냉장고는 조사 이래 통산 20회 1위에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2026년형 '비스포크 AI 패밀리허브 키친핏 맥스'의 내부 카메라가 식재료를 인식하고, 'AI 푸드매니저'가 보관 식재료 관리와 레시피 제안을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김치냉장고는 14년 연속 1위를 이어

풍피두센터 한화, 샤갈 작품 65점 선배

내달 24일부터 '샤갈, 너머의 여정'

풍피두센터 한화가 프랑스 풍피두센터의 마르크 샤갈 소장품을 한자리에 모은 전시를 연다. 화화는 물론 국내에서 접하기 어려웠던 조각과 도자까지 선보여 다양한 매체로 확장된 샤갈의 예술 세계를 조명한다.

풍피두센터 한화는 오는 11월 24일부터 내년 3월 28일까지 두 번째 풍피두센터 컬렉션 전시 '샤갈, 너머의 여정(Chagall, Ever Crossing)'을 개최한다고 28일 밝혔다.

제1전시실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에

는 프랑스 내 10개 기관에 기탁된 작품을 포함해 풍피두센터가 소장한 샤갈의 회화·조각·도자 등 65점이 출품된다. 재제작한 스테인드글라스와 미디어 작품도 선보인다.

풍피두센터는 샤갈의 작업실에서 직접 전달된 유족의 기증 작품을 바탕으로 주요 샤갈 컬렉션을 보유하고 있다. 이번 전시는 190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의 작품을 통해 샤갈이 겪은 시대의 격변과 예술적 실험을 함께 다룬다. 특히 조각과 도자 작품을 통해 회화 외 다양한 매체로 이어진 작업을 살펴볼 수 있도록 구성한다.

/원관희 기자 wkh@

하나금융, 발달장애 학생 진로탐색 지원

밀알학교에 디지털 직업교육 교실
내년 상반기까지 특수학교 3곳 조성

하나금융그룹이 발달장애 학생들의 진로 탐색과 직업체험을 지원하기 위해 디지털 직업교육 환경 조성에 나선다.

하나금융은 지난 27일 서울 강남구 밀알학교에서 '디지털 진로탐색 교실'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날 행사에는 한영주 하나금융그룹 회장과 정형석 밀알복지재단 상임대표, 홍재은 밀알학교 교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사업은 발달장애 학생들이 학교 안에서 다양한 직업을 체험하며 자

신의 적성을 발견하고, 졸업 후 안정적으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하나금융은 밀알학교를 시작으로 인천과 대전 지역 특수학교를 추가 선정해 내년 상반기까지 총 3곳에 디지털 직업교육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밀알학교에 마련된 디지털 진로탐색 교실에는 음성대화가 가능한 휴머노이드 로봇과 직업훈련용 가상현실(VR) 기기, 멀티미디어 학습키오스크, 교육용 판매시점정보관리(POS) 기기, 인터랙티브 LED 보드, 디자인 실습용 태블릿PC 등이 설치됐다.

/나유리 기자 yul15@

한유원, 행복한백화점 동절기 안전점검

이태식 대표 현장 찾아 시설 점검

한국중소벤처기업유동원 이태식 대표가 다가오는 동절기를 맞아 서울 목동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복한백화점에 대한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28일 한유원에 따르면 이번 특별 안전점검은 행복한백화점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한유원의 자회사인 '한유원 파트너스'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태식 대표는 안전관리 담당 부서와 함께 행

복한백화점을 구석구석 살피며 일상속 사고를 방지하는데 만전을 기했다.

특히, 화재가 일어나기 쉬운 건조한 겨울철을 맞아 화재 감지시설과 소방장비 현황, 비상 대피로 점검에 심혈을 기울였다.

이대표는 "이번 특별 안전 점검이 동절기 안전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하며 전 임직원이 사고 예방에 적극 동참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김승호 기자

여성CEO 1500명 한자리 'WE-CON' 성료

제주서 이틀간 교류·협력의 장 마련
새 사업 기회 발굴·성과 공유 다짐

여성 최고경영자(CEO)들을 위한 국내 최대 행사인 '2026 WE-CON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가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하게 막을 내렸다.

28일 한국여성경제인협회에 따르면 기존에 '전국 여성 CEO 경영연수'가 올해 'WE-CON'으로 새롭게 간판을 바꿔달 가운데 지난 26~27일 이틀간 제주국제컨벤션센터를 비롯해 제주 일대에서 열렸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고 여경협이 주관하며 제주특별자치도가 후원한 이번 연수는 '세상을 밝히는 빛, 미래를 이끄는 337만 여성기업'이라는 슬로건

으로 펼쳐졌다.

'WE-CON'의 'WE'는 여성경제인(Women Entrepreneurs)과 '우리'를, 'CON'은 연결(CONnect)과 콘텐츠(CONTents)를 뜻하며, 여성경제인들이 경험을 나누고 성장의 기회를 함께 만들어간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박창숙 여경협 회장은 "여성CEO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쌓아온 경험과 역량이 만나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 성과가 여성기업 전체의 성장으로 이어져야 한다"며 "WE-CON을 단순한 만남을 넘어 새로운 사업 기회를 발굴하고 성과를 함께 나누는 대한민국 대표 여성경제인 플랫폼으로 키워가겠다"고 밝혔다.

/나유리 기자 yul115@



'2026 WE-CON 전국 여성CEO 경영연수'가 지난 26~27일 제주에서 열렸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여경협

귀뚜라미, AX 품질만족지수 보일러 1위

콘덴싱 가스보일러 품질 경쟁력 인정

귀뚜라미가 한국표준협회 주관 '2026년 AX 품질만족지수(AX-QEI)' 조사에서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선정됐다.

28일 귀뚜라미에 따르면 이번 조사에서 성능, 신뢰성, 내구성, 사용성, 안전성, 접근성 등을 평가하는 '사용품질'과 이미지, 인지성, 신규성 등을 평가하는 '감성품질'에서 전반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으며 콘덴싱 가스보일러 부문 1위에 올랐다.

귀뚜라미 콘덴싱 가스보일러는 사용자의 생활습관을 반영한 온수 제어와 간편한 보일러 조작 등 일상에서 체감

할 수 있는 사용 편의를 높여왔다.

대표 모델인 '가꾸로 NEW 콘덴싱 L10 가스보일러'의 '스마트 온수'는 AI가 시간대별 온수 사용패턴을 분석해 온수가 필요할 때 미리 준비하는 기능이다. 평소 온수를 자주 사용하는 시간에 맞춰 열교환기를 미리 예열해 온수 대기시간을 줄여준다.

귀뚜라미는 올해 '귀뚜라미보일러 AI 방방 난방 시스템'을 새롭게 선보이며 생활패턴에 맞춘 AI 제어 범위를 각 방의 난방으로 확대했다. 각 방의 재실 여부와 생활패턴을 분석하는 '방방 난방'에 '쾌속 난방'과 '온수 AI 모드'를 더해 난방부터 온수까지 맞춤형 환경을 제공한다.

/김승호 기자 bada@